

## 조지 부시 美國大統領의 大韓民國 國會 연설편

- 1989년 2월 27일 -

國會議長, 議員 여러분, 그리고 귀인 여러분 /

오늘 이 國會에서 연설하도록 초청하여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젠하워, 존슨 그리고 데이건 前任 大統領의 뒤를 이어 여러분의 國회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大韓民國과 대한민국 國民에 대한 美國의 지원과 우정, 그리고 존경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저는 美國 下院의 前職 議員으로서, 이 立法府를 방문하게 된 것을 특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韓國이 스스로 이룩한 民主化 成功의 결과로서 자유롭게 選出된 議員들이, 한국 국민의 의지를 토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모인 議事堂입니다.

이 國會도 美國 議會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소란과 감정이 충만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民主主義의 소리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를 維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政治家 윈스턴 처칠은 언젠가 "民主主義란 最惡의 政府 형태이지만, 民主主義보다 더 나은 여하한 다른 政府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美國의 41대 大統領이 된 후, 저로서는 이번이 외국 땅에서 행하는 첫 중요 연설입니다.

오늘 저의 한국방문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우리 양국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두 나라의 강한 유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世界의 미래를 위하여 갖고 있는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달 전 저의 大統領 취임은 계속과 변화, 이 두가지물 모두 말해주는 미국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과 변화는 또한 앞으로 韓·美간의 관계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變化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할 때, 우리는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힘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성이 요구될 때에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결연한 사명감을 갖고, 전진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긴밀한 경제적 전략적 관계가 계속 東아시아의 平和의 支柱로 남게 합니다.

저는 45여년 전 제2차 世界大戰 중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왔었습니다. 저는 열아홉(19)살의 10대 소년이었고, 美 海軍의 雷艇艇 조종사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일생에서 처음 자유의 가치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느낀 것이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유의 가치와 우리가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들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2차대전 후 처음 수년 동안,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미래는 대단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한국은 자유와 번영의 희망이나, 아니면 전쟁과 침략의 두 가지 위협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위대한 투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1989-02-27 13:43 FROM

TO

17843576 P.03

1950년 6월 어느날 아침, 北의 공산군은 여러분의 나라를 破壞할 목적으로 大韓民國을 侵略하였습니다. 美軍과 그밖의 유엔軍은 주저하거나 지체함이 없이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急派되었습니다. 美國 國民과 韓國 國民은 여러분 未來의 自決權을 위하여 나란히 함께 싸웠습니다.

저는 황폐해졌던 여러분의 나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都市들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여러분의 工場들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數百萬 한국 국민들은 집없고 굶주린 채 거리를 방황하였습니다.

1951년 전쟁의 와중에서 더글라스 맥아더 將軍은 우리 의회 合同會議에서 演說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 관하여 "韓國 國民의 장엄한 勇氣와 不屈精神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의회는 여러분과 實國民을 위하여 박수를 보냄으로써 그의 演說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戰事 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逆境을 극복하였습니다. 歷史는 오랫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를 記錄할 것입니다—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自由와 經濟의 기회의 광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룩한 기적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提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跳躍의 나라입니다... 믿고 팔기 있는 나라, 未來 물결의 頂點을 타고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여름 이 굉장한 도시가 24회 올림픽경기를 주최하였을 때, 그때보다도 더 귀국의 긍지와 발전을 보여준 때는 없었습니다. 160개 국가로부터 이곳에 참석한 운동선수가 거의 1만명이었고, 그 외에 30억의 인구가 텔레비전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손기정 씨가 봉화를 들고 올림픽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순간부터 폐막식에서 올림픽 성화의 마지막 불꽃이 꺼질 때까지--믿을 수 없을만큼 장엄한 스포츠의 축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향해 주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으로 정중한 주인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과거 수년 동안 우리는 모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등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저의 여행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이곳 한국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여행은 이러한 진실과 그 현실이 세계의 미래에 부여하는 의미를 입증해줍니다.

오늘날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活力에 넘치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大韓民國은 그 앞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公約은 이 議事堂에서 매일 입증되고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의 과감한 외교인 북방정책은 아시아·태평양의 안과 밖에 있어서의 관계를 제정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케시다首相과 중국의 덩소평,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과의 이번 저의 會談에서 저는 양국간, 범세계적, 그리고 지역간의 挑戰的 案件들을 論하였습니다. 우리의 논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우호와 협조의 정신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충신한 친구, 신뢰할 수 있는 盟邦의 지도자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계속 상호 협조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동임무는 여러분이 어렵게 쟁취한 自由와 民主主義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우한미군을 유지하고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을 뒷받침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駐韓美軍은 자국한 계획은 있습니다. 美韓·일간의 盟邦들은 대한민국이 요청에 따라 北

韓으로부터의 侵略을 抑止하기 위해 韓國에 와 있으며, 美軍의 존재는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美軍이 이 위치를 韓 半島의 北쪽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平和를 實現할 最善의 手段이라고 우리가 믿는 限 美軍은 大韓民國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앞으로 해는 거듭하면서, 韓半島에서 전개되는 安保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리는 능동한 동반자로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 동안 平和유지는 우리 양국의 安保에 關係에 重要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政策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우리의 敵對國과의 對峙를 減소하는 實效적인 外交로 戰爭 抑止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平和的 統一을 달성하려는 여러분의 목표에 미국 국민은 共感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北韓쪽으로도 다다를 놓으려는 威權主義의 平和的인 提議를 적극 支援하는 것입니다. 저는 威權主義와 眞正히 平和하여 北韓을 眞正히 이끄는 平和적이고 생산적인 對峙를 유도하고, 또한 우리의 政策이 相互 補強的인 것으로서 實現을 기할 것입니다.

侵略을 抑止하고 平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軍 그리고 외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重要한 因素이 있는데, 그것은 이 國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安保의 기초는 國民의 同意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實效적인 방법은 民主的 政治 機構의 발전인 것입니다.

民主的 體制 안에서 보다 나은 安保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協助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自由·開放의 國際貿易 體制 안에서 經濟的 번영의 實現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經濟成就是 全世界 開發途上國의 자극제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발휘함으로써, 여러분은 한국을 전례없는 기회와 繁榮의 시대로 인도하였습니다.

韓國은 工業強國이며, 重要한 貿易強國이고 또한 一級 競爭者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아시아 黃金期의 밝은 빛이었던 韓國, 그 韓國에 불이 다시 붙여진다"고 믿었던 印度의 詩人 타고르의 예언을 實現시키고 있습니다. 韓國은 自由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世界가 선망하는 대상으로 만든 國際貿易 體制에 참여함으로써 큰 번영을 이룩해 왔습니다. 모든 韓國人들은, 한 나라 國民으로서 여러분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제적 성공이 우리 양국 경제관계의 운영에 있어 우려를 자아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간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美國 國民에게는 우리 양국 貿易 不均衡을 줄이는 일은 하나의 도전인 동시에 기회도 된 것입니다. 도전이라 함은 보호무역주의 요구를 억제하는 일이며, 기회라 함은 우리 兩國의 번영을 확대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다방면에서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귀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유럽 무역상대국을 앞질러 우리의 7번째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또한 우리의 7번째 최대 시장입니다. 미국은 韓國의 最大市場인 동시에 또한 두번째로 큰 對韓輸出國입니다. 우리는 또한 귀국의 계속적 經濟成長과 발전의 필요 원동력이 되는 資本投資와 기술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韓國經濟는 自由貿易의 혜택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多數國가들이 保護貿易主義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미국과 합세하여 이러한 近視眼的인 요구를 거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